



## 엠에스이엔지,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부

(주)엠에스이엔지 서종윤 대표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전북대학교에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11일 전북대 별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와 참석한 가운데 서종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 및 창업 우수인재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엠에스이엔지는 모듈러 프레임 제작 기업으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박람회 현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종윤 대표는 “이번 발전기금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 남원 도통동, 착한 가게 11호점 현판식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서덕교)는 11일 광진동의 (주)중앙일렉파워(대표 신창섭)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11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점 대표는 “작은 마음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우리의 나눔이 남원시 기부문화 확산의 미중 물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고 전했으며, 서덕교 위원장은 “도통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신청점 대표는 착한가게 등록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에 전등 무선리모컨을 설치해주는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지역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정읍시장애인복지관, 42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4월을 장애 공감의 달로 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420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1집포 1포어 캠페인 △우리, 42종은 아침에 만나 캠페인 △장애인권리협약 8원칙 따라쓰기 △유퀴즈-장애아이페스티벌 △소통전시회 등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표 캠페인인 '1집포 1포어 캠페인'은 사업체 대표가 캠페인 영상을 보고 직접 장애인식개선문구를 작성한 표어를 지역주민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점포 출입문에 부착하는 캠페인으로 총 50개 단체 참여를 받고 있다.

“우리, 42종은 아침에 만나 캠페인은 직접 제작한 장애인식개선 현수막을 들고 출근, 등굣길을 활용해 진행하는 거리 인식개선캠페인으로 총 10개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 12일에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는 정음을 만들고자 시설단체 종사자 50명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 선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진안군 상전면 지사협·정기회의·반찬나눔

진안군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상전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각지대 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화사업(사랑기금·찬밥)을 추진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번 사업에서는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케어뱅크'에서 후원으로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불고기와 고추조림, 나박김치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반찬 3종을 손수 만들어 독거어르신 20세대에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옥순 상전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봄 벚꽃처럼 어르신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석 위원장은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상전면 발전을 위해 애쓰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상생발전 디딤돌 되길”

완주군 공무직 노조, 김제·무주와 고향사랑 상호기부

지역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완주군·김제시·무주군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김제시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안용주), 무주군 공무직 노동조합(지부장 오순덕)은 군현 군수실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상호기부했다.

기부에는 조합원 1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상곤 완주군 위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랍니다”며 “각 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주 김제시 위원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순덕 무주군 지부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에 혜력을 줄 수 있는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기부에 나서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동구 도의원, 4-H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4-H연합회는 김 의원이 “평소 낭나른 관심과 열정으로 농생명사업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특히 4-H연합회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이러한 공을 인정해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분별언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4-H연합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김동구 의원은 “4-H연합회는 농촌 후계인력·차세대농업인을 양성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농촌 지역의 혁신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뜻 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4-H연합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훈기자

## 전주제일고, 사은 장학금 전달식 가져

전주제일고등학교(교장 한문수)는 지난 9일 교장실에서 사은 장학금(구, 김태술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재학생 10명에 1인당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은 장학금은 김태술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2010년 시작됐다. 13회 졸업생(1956년 졸업인 김태술 등문이 재학시절 선생님들께 받았던 도움과 궁핍했던 가정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던 자신을 되돌이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학업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것

김태술 등문은 2023년까지 14년간 140명의 학생에게 모두 4억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중단을 염려해 사례를 모아 올해 10억 원을 기부, 이를 재원으로 본인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길 희망했다.

장학금 명칭 또한 ‘김태술 장학금’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제자들에게 따뜻했던 스승님의 뜻을 기억하는 의미로 ‘사은 장학금’으로 변경했다.

한편 김태술 등문은 본인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장학금



전달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문수 교장은 “김태술 등문의 후배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사은 장학금 전달식을 갖게 됐다”면서 “김태술 등문의 뜻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돋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교육 운영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84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등록급식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6월) 어린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콩을 먹어요’로 콩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어린이교육은 체험교육과 방송교육 형태로 수요 시 수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콩크기와 색이 다른 콩을 먼저보고 콩을 이용한 마리카스 애기 만들기 △알록달록 활동자에 콩 스티커를 붙여 콩 안경 만들기 △콩의 종류와 콩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콩 그림 스티커를 이용해 부채 꾸며보기 등이다.

지원센터는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보호자들은 마리카스에 든 콩을 이용한 요리나 콩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푸나를 기르기 인증샷을 찍어 메일로 제출하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며 “매월 제공되는 식단에 신메뉴를 개발해 편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임실군애향장학회,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줄이어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임실군애향장학회에 따르면 임실을 상원미을 김영수 이장과 (주)동양에듀 문정빈 수학강사가 임실군청을 방문하여 각각 100만원씩 애향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실을 상원미을 이장은 맡고 있는 김영수 씨는 “평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임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흔들한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동양에듀 소속으로 봉황인재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수학강사를 맡고 있는 문정빈 씨는 “임실군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꾫꼿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민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 정읍시 보건소, 간호조무사회, 일손돕기 진행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와 전북간호조무사회가 함께 진행한 도·농상생 프로젝트 ‘일손 나눔 브릿지: 도시와 농촌의 만남’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10일 정수면 리라탈농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간호조무사회 회원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상주 고설자배, 딸기 수확, 적화작업 등의 활동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민들에게 농업 교육과 농촌 생활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최영규 센터장은 “도시와 농촌 간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지속적인 도·농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진안군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일자리센터는 도농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도시 유숙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지원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심 있는 구직자와 농가는 진안군일자리센터로 전화(063-432-9297) 또는 방문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